

기독교신앙과 지식의 통합: 글로벌의 시도

신기영

종교사회학 박사

학교법인 복음학원 사무국장, 장신대 겸임교수

1990년대 이후 대안교육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대안학교들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기대했던 결실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근원적 원인으로, 대안적 교육철학에 근거한 교육과정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것과 대안교육을 구현시킬 수 있는 훈련된 교사들이 부족한 것 등이 지적되고 있다¹⁾. 따라서 이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은 한국 대안교육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 문제들을 인식하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한 대안학교를 소개할 것이다. 2002년 3월에 부산에서 개교할 지구촌(GloVill)고등학교가 바로 그 학교이다. 이 학교는 대안학교의 유형 중에서 고유이념을 추구하는 학교로서²⁾, 한국 선교를 돕기 위해 한국선교사 자녀 및 해외동포자녀를 주 교육대상으로 두고 기독교적 교육과정으로 양육하고자 세워진다. 설립주체인 학교법인 복음학원은 2000년 3월부터 선교사자녀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교사후보자들을 모아 교사훈련(6개월 과정)을 시작하여, 2001년 8월까지 제 3기 훈련을 마쳤다. 이 훈련과정에서 소명을 점검한 교사들은 2002년 3월의 개교를 준비하고 있다. 교사훈련과정 개발과 개교준비 과정에서 이 학교의 교육철학이 다듬어졌고, 이 철학에 기초한 교육과정이 조금씩 세워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지구촌고등학교의 교사공동체가 생각하는 지식관과 이에 기초하여 연구되고 있는 교육과정 개발과정의 일부분을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서 지식관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학교는 교회, 가정과 달리 지식-중심으로 양육이 일어나는 장이기 때문이다.

1. 현대 인식론의 문제

알버트 E. 그린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기」(151쪽, CUP)에서 현대 인식론의 문제를 의미(자유, 개인의 자율성, 실체)와 사실(결정, 과학, 현상) 이 둘을 통합할 수 있는 개념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계몽주의와 그 산물인 실증주의적 과학이 인식론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이후, 현대인은 사물의 의미에 대한 사색은 멈추고, 관찰 가능한 실재, 즉 사실을 탐구하는 데만 혼신을 다해왔다. 그 결과로 의미와 사실은 분리된 얇은 영역들이 되었고, 이 둘을 함께 포용할 수 있는 길은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 왜 현대시대에 의미와 사실은 분리되게 되었나?

현대성은 개인의 인식력과 이를 통해 얻어지는 지식에 대한 과신 위에 세워졌다³⁾. 지식은 객체 속에 있는 원리와 규칙에 대한 이해로 규정되어⁴⁾, 인식 주체를 객관적인(가치 중립적) 상태로 보호할 수 있는

1) 정유성과 이종태의 “대안학교(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사양성 방안(1999)” 연구보고서 참조함.

2) 정유성과 이종태의 연구에 따르면, 대안학교는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고유이념추구형, 자유학교형, 재적응 학교형, 생태학교형.

3) 현대성에 대한 설명은 주로 Millard J. Erickson, 「Postmodernizing the Faith」(1998, Baker) 제 1장을 참조하였다.

4) Theology and Sociology: A Reader (Robin Gill, 1996, Cassell)에 게재된 “Theology and Symbolic Realism”에서 저자 Robert Bellah는 종교적 상징의 사회학적 이해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초기 자연과학의 기계론적 모델이 실

인식의 방법으로 생각된 이성을 선택하고, 그 외 다른 인식 방법(계시, 권위, 직관)은 배제되는 경향을 띄었다⁵⁾. 그리고 이성에 의해 알아지는 지식을 통해 우주의 보편적인 이론이 세워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런 경향은 현대인으로 하여금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자연과 현상(사실)만을 앎의 대상으로 제한하게 했고, 초자연(창조주)과 실체(의미)는 제외되게 되었다. 즉 앎의 대상이 개인의 이해력에 맞추어 축소된 것이다. 요약하자면, 현대인은 앎의 대상에서 창조주를 인식 방법에서는 이성 외 다른 것들을 배제시킴으로, 의미와 사실을 서로 분리시킨 것이다. 필자는 전자를 ‘실재의 축소’로 후자를 ‘인식력의 축소’로 일컫고자 한다.

2. 후기현대의 해결안⁶⁾

현대인이 기대했던 보편적인 이론은 인식자의 비중립성으로 인해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이 점차적으로 확증되면서, 이성-중심의 인식력에 대한 의심이 일어났다. 후기현대는 이 현대 인식론의 한계를 극복해보려고 시도한다. 먼저 보편적인 이론의 형성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추구를 단념하고, 다양한 작은 이론들을 추구한다. 그리고 이성만으로 세상을 알 수 없다고 성찰하고, 소외되었던 인식방법들인 계시, 권위, 직관 등을 수용하게 된다. 또한 인지의 단위를 개인에서 공동체로 확대하여, 개인 인식력의 한계를 개인들의 담화 공동체를 통해서 극복하려고 시도한다. 현대와 비교하여, 후기현대는 현대에 의해 축소된 인식력을 회복시키고는 있으나, 현대가 설정한 축소된 실재를 성찰하고 있지 않다. 즉 현대 인식론의 문제에 대한 후기현대의 해결안도 창조주가 제외된 축소된 실재 안에서 발전된 것이다.

3. 기독교의 한 해결안

그린은 앞의 저서에서 현대적 인식론의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해결책으로 두 학자의 노력을 소개한다. Martin은 ‘신앙에 의한 상상’으로 묘사한 ‘상상적인 통찰력’의 개념을 개발하였다. 어떤 실재에 대한 지식의 정당성의 근거는 “기다려야만 하는 실재의 현존과 활동의 자기 계시(153-154쪽)”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Loder는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배우는 과정에는 ‘상상의 비약’이 일어난다고 했다. 즉 “의식 저 너머에 있는 실재의 영역으로부터의 중재적인 개입(155쪽)”이 일어난다는 의미이다. 필자는 이 두 학자의 핵심 개념들로부터 현대 인식론에 의해 잊혀진 실재가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이다.

제임스 사이어는 「지성의 제자도」에서 기독교적 인식론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인 의미의 존재로부터 시작된다고 지적한다(103-104쪽). 사람이 알아 가는 대상이 사람의 인식보다 먼저 존재하는데, 가장 최초의 대상이며 다른 대상의 근원이 바로 창조주인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현대적 인식론의 문제를 해결

재가 객체 안에 존재하고 주체는 단지 그 객체의 행위를 관찰하여 원리와 규칙을 찾아내어야 한다는 객체-중심의 실재관을 파급시켰다고 정리한다.

5) 그린은 앞의 저서에서 George Knight가 「Philosophy and Education」에서 지식의 근원들로 감각, 계시, 권위, 이성, 직관 등을 지적하면서, 현대인은 감각과 이성을 통해 지식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음을 소개한다(159쪽).

6) Millard J. Erickson, 「Postmodernizing the Faith」(1998, Baker) 제 1장, Walter Brueggemann, Texts Under Negotiation: The Bible and Postmodern Imagination (Fortress 1993) 제 1장, Lee Hollaar, "Leadership is Community Building: A Postmodern and Independent School Perspective" 등을 참조하였다.

하기 위해, 그 문제의 뿌리인 ‘축소된 실재’를 다룬다. 앎의 대상인 실재가 원래의 것으로 회복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 원래의 모습은 창조주와 피조 세계로 구성된 실재이며, 이 둘은 한 통일된 실재이다.

1) 앎의 과정

로널드 벨슨은 F. Bernard Lonergan의 앎에 대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사람은 어떤 자료를 경험하고(경험적 수준), 경험한 것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지성적 수준), 이해된 것의 진위를 판단하고(합리적 수준), 판단에 따라 그 특정한 것에 자신의 삶을 참여시키거나 실천하는 책임 있는 결단(책임과 결단의 수준)을 하게 된다⁷⁾. 그는 첫 세 수준들을 인식자의 자기 지시적 과정으로, 네 번째 수준을 자기 초월적 과정이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전자는 인식적 행위의 수준에 있는 반면, 후자는 신앙적 행위의 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신앙적 행위는 인식자가 더 이상 자신이 아닌 다른 독립된 어떤 것을 붙들어야 하는 조건에서 일어난다. 즉 어떤 형태의 신앙에 기초하여 사람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삶을 헌신하게 된다는 것이다.

필자는 벨슨의 정리에 덧붙여, 전자의 과정에서 사람은 어떤 실재에 대해 알게 되고, 후자의 과정에서 바야흐로 그 실재를 알게 된다고 상상해본다. ‘책임과 결단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어떤 실재의 본질, 의미, 목적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실재를 창조하신 자를 향한 신앙이 아니고서는 그것의 온전한 본질과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⁸⁾. 창조주를 신앙한다는 것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사귀를 통해 그분을 알아 가는 것을 의미하며, 그분을 알아가면서 사람은 그분에 의해 창조된 실재가 지닌 본질과 의미 그리고 목적을 알아 가게 된다.

또한 필자는 신앙적 행위의 수준이 인식적 행위 수준과 구분되어 강조함이 인식적 행위 수준에서 일어나는 신앙적 영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인식자는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 설명의 진위를 판단할 때, 어떤 시각을 갖고 행한다. 그리고 시각은 세계관적 가정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인식적 행위 수준에서도 세계관적 확신이 포함되어 있다. 이 진술의 타당성은 인식자가 세계관적 확신의 개입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가 보다는 인식 자체에 내재된 본성에 의해 입증된다고 생각한다.

요약한다면, 사람이 어떤 실재를 안다는 것은 어떤 세계관에 근거한 특정 시각을 통해 그것을 이해하고 판단한 것을 신앙적 결단에 근거하여 자신의 삶을 그 지식에 참여시킴으로 그 실재의 본질과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는 그 신앙적 결단이 그 실재의 창조주와의 관계 안에서 내려질 때만, 그 실재의 본질과 의미를 알게 된다고 주장한다. 사람의 앎은 창조주와의 관계 안에서 온전히 완성될 수

7) 이 내용은 「기독교적 학문의 실재: 통합연구」(CUP) 안에 게재된 로널드 R. Nelson의 “신앙-학문 통합: 양립론자, 개조론자 및 변혁론자들의 전략” 47-48쪽을 참조했다. 흥미롭게도, 이 네 가지 앎의 과정은 Pamela Mackenzie가 편집한 「The Entry Points: for Christian Reflection within Education」(1997, Care for Education)에서 소개한 히브리어 ‘야다’의 네 가지 용례와 조화롭게 연관되는 것 같다. 그 첫째는 배워서 아는 것이고, 둘째는 인격적인 사귀를 통해 아는 것이고, 셋째는 선택의 기로에서 바른 것을 분별하는 것이고, 넷째는 책임을 수행하는 것 등이다. 필자의 생각에는, 배워서 아는 것은 경험적, 지성적 수준과, 분별하는 것은 합리적 수준과, 책임 수행은 책임과 결단의 수준과 연관되며, 인격적 앎은 인식적 과정에서 신앙적 과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앎으로 생각된다.

8) Lonergan은 사람의 앎의 욕구가 무한정 하다고 했는데(Nelson의 글 49-51쪽), 필자는 그 무한정성의 근거는 바로 사람이 실재의 본질과 의미를 알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무한정한 질문에 응답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가 결국 본질과 의미의 신적 기원으로 사람을 지향하게 하는 것이다.

있다. 사람이 어떤 실재에 대해 알아 가는 과정에도 신앙이 개입되고, 그 실재의 특성에 따라 그 개입의 영향은 다양하다.

2) 앎의 대상

사람은, 제한적으로나마, ‘아는 존재’이다⁹⁾. 이는 온전히 ‘아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이다. 제한적으로 ‘아는 존재’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한 통일된 실재를 두시고, 그 안에 앎의 두 대상을 두셨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 그 자신이며, 다른 하나는 **피조된 창조세계**(자연, 사람, 문화)이다. 이들은 구분되지만, 분리될 수 없는 한 실재(the Reality)이다¹⁰⁾. 이 두 대상의 본질은 각각 **진리와 본질적 의미**(골 1:15-17)이다. 이 본질은 앞에서 소개한 앎의 신앙적 과정을 통해서 알게된다¹¹⁾. 앎의 인식 행위 과정 안에 머물러서는 하나님과 피조 세계에 대한 **원리**를 아는데 그친다¹²⁾. 한 실재의 본질적 의미를 아는 것은 그 실재의 원리적 이해를 더욱 강화한다.

창조주와 자연, 사람 그리고 문화의 각 원리를 알아 가는 과정에도 신앙은 개입한다. 생각해볼 점은 신앙적 영향이 각 실재의 원리를 알아 가는데 어떻게 다르게 미쳐지는가에 관한 것이다. 자연은 그 운행과 현상의 관찰에 대한 이성적인 해석(쇠퇴한 자연적 은사)을 통해 어느 정도 그 원리를 알아갈 수 있는 반면에, 사람의 원리는 삶과 현상의 관찰만으로 알아가기 힘들다. 이는 사람들이 그 원리대로 실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데¹³⁾, 따라서 사람의 원리에 대한 이해는 관찰자의 해석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 또한 제임스 사이어(위의 책, 181쪽)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더욱 가까이 있고 그 성품을 드러내는 자이기에 쇠퇴한 자연적 은사와 파괴된 초자연적 은사로는 알아가기 힘들다고 한다. 이 생각들을 종합하면, 인식자의 해석의 개방정도는 자연, 문화, 사람, 창조주로 가면서 더욱 커진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인식자의 해석은 특정 시각에 의해 행해지고, 그 시각은 인식자의 의식을 넘어, 특정 세계관에 기초한다. 따라서 원리의 이해 과정에서 신앙은 인식자의 해석 개방정도에 비례하여 그 영향이 커지게 된다.

원리를 알아 가는 과정에서 제기 되는 질문은 어떤 실재의 ‘원리는 무엇인가?’이다. 현대인은 원리 알기

9) 제임스 사이어의 「지성의 제자도」 106-107쪽을 참조했다.

10) 창조주와 피조물간의 구분은 성경이 강조하는 궁극적인 이원성이다 (리처드 마위, 「왜곡된 지식」, 113-114, CUP).

11) 필자는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에서, “예수님 안에서 인격적 진리의 패러다임을 발견하기 위해 반드시 그분을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진리는 인격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각 개인의 심장부에 있는 진리의 형상을 긍정하는 것이다(84쪽).”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그의 ‘진리’는 모든 사람들 -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맺음의 여부를 떠나서 -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인식주체와 대상간의 관계를 통해 긍정될 때 발견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주장은 인식주체와 대상간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그의 논지에 근거를 둔다. 이 진리와 인격적 관계의 무리한 등식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중심 됨을 희석시킬 뿐만 아니라, 비인격적인 대상과의 관계까지 인격화시키는 무리를 범하게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12) 필자는 창조주의 진리와 피조 세계의 본질적 의미를 창조주와 피조 세계의 원리와 서로 다른 것으로 구분지음으로 제임스 사이어의 부분적인 견해를 수용하지는 않는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지를 이해하는 것과 화학물질로서의 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동일한 지성에 의해 알아진다고 주장한다(「지성의 제자도」, 112-113쪽). 필자의 생각에, 만약 사이어의 ‘이해한다’가 하나님과 물에 대한 지성적인 작용만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수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두 대상 모두에 대해 사람은 동일한 이성으로 이해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그 진술이 하나님을 아는 신앙적인 행위 수준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이 수준은 이성을 떠나 자기-초월적 과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13) C. S. 루이스, 「내가 믿는 기독교」 22-27쪽(대한기독교서회)을 참조함.

에 그 탐구의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¹⁴). 이성은 원리를 어느 정도 바르게 알아갈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 원리가 진리에 의해 창조되었고 본질적 의미를 지향하고 있음과 원리 탐구에 신앙적 영향이 개입됨을 부인한다. 원리의 근원이 배제된 원리 파악의 노력은 그 과정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수많은 상호 모순된 ‘사회적 원리들’을 낳게 한다. 이 중에는 바른 설명들도 있으나, 많은 왜곡된 것들과 함께 섞여 있다. 이 상호 모순된 견해들을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현대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합의’에 소망을 두게 하여, 결국 다원주의(모순된 세계관들의 병존)와 상대주의(모든 가치는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의 세상으로 만든다¹⁵).

진리를 알아 가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바른 질문은 ‘진리는 누구인가?’이다¹⁶). 진리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진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 사권을 통해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면서 알아진다. 인격적 닮아짐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 설명의 진위를 판단하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 순종함으로 일어난다.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간의 인격적 대화를 낳고 사람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의해 깎이어 그분의 인격이 그 사람 안에 자리잡게 된다. 피조 세계의 본질적 의미는 진리에 의해 세워진 의미로 그의 인격이 그 안에 들어 있다. 따라서 진리와 본질적 의미는 사람의 마음에 인격으로 자리잡는다.

3) 기독교신앙과 지식의 통합

‘축소된 실재’를 회복시키기 위해 기독교신앙과 기독교사가 기울이는 노력은 ‘기독교신앙과 지식의 통합’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따라서 이 통합의 노력은 현대인식론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이다. 이 통합의 의미는 기존 지식에 신앙적 통합이 없기에 신앙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어떤 비기독교신앙으로 통합되어 있는 지식이기때문에 기독교신앙 안에서 조명하여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진술은 이미 통합에 대한 특정한 접근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¹⁷) 필자는 로날드 벨슨이 소개한 양립론과 변혁론 둘 다를 동시에 고려함으로 통합의 한 시각을 세우고자 한다. 양립론은 기독교신앙과 기존 지식이 공유한 양립적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들을 찾아서 통합하려는 시도이며, 변혁론은 신앙의 가정으로 기존 지식을 조명하여 변화시키려는 시도이다¹⁸). 양립론은 기존 지식 중에서 기독교신앙과 공유될

14) 팔머의 객관주의적 교수방법에 대한 비평은 원리 지향적 앎의 현대적 습관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유익한 분석을 제공한다(「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제 3장 참조). 이 국한된 앎의 과정에서는 인식주체의 회심과 지식의 실천이 요구되지 않는다. Lonergan이 제시한 ‘책임과 결단의 수준’으로 나아가길 주저하는 현대지성인은 자신을 헌신으로 도전하지 않는 원리만을 지식의 대상으로 삼게 된 것이다.

15) 제임스 사이어의 「홍길동 대학에 가다」(IVP) 제 5장을 참조함.

16) 이 질문이 현대인에게 생소한 것은 현대의 객관성 강조가 진리관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지식의 객체성이 진리의 정체성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그 인격성을 앗아갔다.

17) 통합에 대한 다양한 이해들이 있다. 케네스 헤르만은 「기독교신앙과 전공과목」(IVP) 제 4장에서 기독교학자들이 시도하는 통합의 세 가지 일반적인 유형들(기독교적 연구주제 선정, 기독교신앙과 조화되는 지식의 수용, 신앙으로 선별된 지식으로 새로운 지식 창출)을 소개하고 각각에 대한 비평을 내리고 있다. 아더 홈즈는 「기독교대학의 이념」(CUP) 제 5장에서 통합의 네 가지 차원들, 태도적, 윤리적, 기초적, 세계관적 차원을 소개한다. 울프는 「기독교적 학문의 실제: 통합연구」(CUP)에 게재된 「통합과 의사통합 사이의 경계」에서 학문의 가정 점검, 학문의 가치 점검, 조직적 도식들 등을 소개한다. 앞에서 소개된 로날드 벨슨은 통합의 전략들, 양립론, 개조론과 변혁론을 소개한다.

18) 대략적인 관찰에 따른 필자의 초보적인 상상은 양립론자의 군에는 주로 자연과학자들(예, 두뇌생리학자 MacKay, 수학자 Heie 등)로 구성되고, 변혁론자의 군에는 신학자, 인문사회과학자들로 구성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실제에 대한 해석개방의 정도가 지식의 왜곡 의식을 그 학문공동체에 속한 기독교인들에게 다른 정도로 불러

수 있는 지식에 그 통합의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변혁론은 기존 지식 중에서 기독교신앙에 의해 회복되어야 하는 지식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¹⁹⁾.

이 두 접근을 종합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이 통합의 한 시각을 마련하고자 한다. 우선 지식을 창조주(신), 자연, 사람과 사람들(사회) 그리고 문화의 원리에 대한 사람들의 진술된 이해로 정의한다. 그리고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열려져 있다고 본다. 따라서 기존 지식 중에서 인식적 차원에서 기독교신앙과 공유될 수 있는 지식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공유될 수 있는 지식 중에는 실제의 본질(창조주의 진리, 피조 세계의 본질적 의미) 안에서 해석되어지지 않거나, 유사본질에 근거한 시각으로 해석되어진 채로 남겨져 있는 지식도 있다. 또한 기존 지식에는 기독교신앙과 공유될 수 없는 왜곡된 지식도 있다. 이런 유의 공유될 수 있는 지식과 왜곡된 지식 모두는 기독교신앙에 의해 회복되어야 할 지식이다. 이 회복은 진리의 인격으로 자라는 사람이 구비하게 되는 '기본적 지평(인격, 시각)'에 의해 이런 지식이 조명되고 변혁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명과 변혁의 과정에는 기독교신앙인의 '기본적 지평'과(그 자신이 속해 있거나, 통합하려는 특정 지식을 형성시킨) 학문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상대적 지평'간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이 일어난다²⁰⁾. 이런 역동을 통해 실제의 원리에 대한 많은 지식은 그 실제의 본질을 알아 가는 사람에 의해 회복되어 바른 원리로 세워지게 된다. 이 통합의 과정이 사실(과학적 지식의 대상과 그 지식 자체)과 그것의 의미(과학적 지식의 대상인 실제의 본질적 의미)를 다시 함께 묶어주는 기독교적인 방안인 것이다.

4. 글로벌의 통합 시도

1) 글로벌의 지식관과 통합관

첫째, 삶의 대상에는 창조주와 피조 세계(자연, 사람, 문화)가 있고, 이 둘은 하나의 통일된 실재이다.

둘째, 삶의 내용은 삶의 차원에 따라 다르다. 인격적 차원에서 사람은 창조주의 진리와 피조 세계의 본질적 의미를 인격화하게 되고, 인식적 차원에서 사람은 창조주와 피조 세계에 대한 원리를 인식하게 된다.

셋째, 실재를 아는 것(인격적 차원)과 실재에 대한 삶(인식적 차원) 이 모두는 신앙적 행위이다.

넷째, 사람들이 창조주와 피조 세계에 대한 원리를 인식하기 위해 축적한 진술의 집합을 지식이라고 부른다.

일으킬 것으로 추측하기 때문이다.

19) 필자는 지식을 문화의 한 부분으로 보고, 이 세상의 지식을 스티브 몬스마 편저, 「책임 있는 과학기술」(CUP), 120-121과 조종남 편저, 복음과 문화(IVP), 72-73쪽을 참조하여 아래의 범주들로 정리해본다. 통합의 대상이 되는 지식은 이들 가운데 일부분임을 강조한다. 첫째, 창조주께서 친히 세우신 지식의 내용이 있다. 둘째, 계시(일반계시 또는 특별계시)에 순종함으로 얻어진 것으로 생각되는 지식의 내용이 있다. 셋째, 계시에 불순종함으로 얻어진 것으로 생각되는 지식의 내용이 있다. 이들 중에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변혁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넷째, 계시에 대한 신학적 해석들에 있어서 위의 범주 중 하나로 일관된 판단을 내리기 힘든 내용들이 있다. 다섯째, 계시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도 있다. 또한 지식은 다양한 문화적 차원들(세계관, 가치기준, 관습, 제도, 의사소통양식 등)에서 형성된다. 세계관은 가치기준에 스며있고, 세계관과 가치기준은 관습의 근간이 되고, 제도는 이 관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들의 모임을 통한 한 사회는 통합된 체계로 세워진다. 의사소통양식은 이런 차원들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담화를 가능하게 함으로, 제도화와 변화를 일으키는 매체가 된다.

20) 넬슨의 책, 55-59쪽 참조함.

다섯째, 모든 지식은 다음의 이유로 존중되어야 한다: 1) 원리를 알아감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도록 창조주께서 지으셔서 사람들에게 의해 형성된 것이고, 2) 이미 교사와 학생의 지식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기존 조건으로 수용하고 점차적으로 다루어 가는 것이 요청되고, 3) 글로빌에서 양육된 학생들이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 지식을 가져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돕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그러나 지식에는 기독교신앙과 공유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왜곡된 지식)이 있다. 공유될 지식 중에는 실제의 본질(진리와 의미)에 분명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것도 있다. 이 공유될 수 있는 지식과 왜곡된 지식은 기독교신앙과의 통합이 필요하다.

일곱째, 통합은 진리를 닮아 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적 인격과 그 안에서 세워지는 공유된 시각이 지식에 적용될 때 시작된다. 지식의 전제와 그 전제가 지식의 형성과 적용에 어떻게 작용했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피는 조명 작업이 이 과정에 포함된다.

여덟째, 통합은 기독교교사가 개인의 통합 작업에서 갖게 되는 질문들과 그 작업의 결과물을 동료 교사들 또는 학생들과 함께 나눌 때 완성되어 진다.

아홉째, 공동체가 축적하는 통합된 지식은 공동체의 인격성장과 시각개발에 의해,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되거나 전해지는 지식과 그에 대한 비평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롭게 확장된다.

2) 통합의 출발: 기독교교사의 소명

교사는 자신이 전공한 학문의 지식을 배우고, 그 학문 중에서 일부를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게 된다. 배운 지식과 가르치는 지식 모두에 왜곡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왜곡된 지식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수 방법에도 있다. 교사는 진리를 닮아가면서 형성되는 기독교적 시각을 통해 왜곡됨을 발견하게 된다. 통합이 출발하는 환경은 왜곡된 가르침이고, 통합이 추구하는 목표점은 가르침의 회복이다. 그리고 가르침의 회복은 점진적인 과정이다. 이것은 마치 한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조금씩 성숙해지듯이, 가르침도 회복의 목표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다. 회복의 시작은 교사의 회심에서부터 일어난다. 이것은 기독교인으로서의 회심이 아니라, 기독교교사로서의 회심을 의미한다. 기독교교사로서의 회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독교교사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다. 소명의 확신은 교사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가게 되는 과정으로 어떤 외부적 난관과 자신의 나태함을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가르침의 장에 초대받은 확신에 찬 기독교교사는 자신의 신앙을 소명의 자리 한 복판에 적용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아 이 적용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글로빌은 한 학기(6개월)동안 이 비전에 관심 있는 교사들을 위해 교사훈련과정을 연다. 이 과정의 목적은 글로빌의 비전을 소개하면서 먼저 기독교교사로서의 부르심을 점검하게 하고, 이 사역에 부르심이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는데 둔다. 비전 소개는 비전이 구체화되고 성취되어지는 과정에서 작성된 설립일기, '섬기는 대상'인 선교사자녀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아 가는 것, 이들을 양육하는 교육방법으로 기독교적 가르침의 준비 등을 통해 진행된다. 그리고 1박 2일의 교사캠프와 6박 7일의 KEY(Korean Expatriate Youth)학습캠프로 그 과정은 마무리되고, 일정기간 동안 소명점검을 위한 기도로 초대하고, 소명 점검된 교사후보자는 소명진술서를 제출한다.

3) 통합의 장: 공동체

필자는 새삼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공동체로 수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발견한다. 따라서 통합의 실행 단위도 여러 기독교사들로 구성된 교사공동체라고 본다. 통합은 기독교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기에 다른 기독교사들의 동역이 요청되며, 통합에는 세계관적으로 회복되는 각 교과지식이 다른 교과지식과 상호 연결되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통합의 공동체적 노력은 그 구성원인 교사들간의 지체지식 안에서 가능해진다. 따라서 한 학교공동체의 통합 시도는 교사공동체의 건실한 형성에 의해 조건화된다. 동료교사의 조언을 향해 열려진 마음은 학생들의 창의적 반응을 수용하는 교사의 마음으로 이어진다.

글로벌은 하나님께서 지체로 붙이신 교사들로 이미 소명 점검한 교사들과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사역의 단위는 지체가 아니라 공동체라는 원리 위에, 한 몸을 세우는데 노력을 다 한다. 매주 이틀간 정기모임을 갖고 동일한 범위의 성경본문과 공동체 관련 기독교도서를 묵상하고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한 중보에 힘쓴다. 그리고 개교를 위한 준비작업을 수행한다. 교제와 작업을 전 일정의 반씩으로 두었다. 공동체의 허상을 직시하고 현실적 연약함이 머리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강화됨을 체험한다. 서로를 향한 조언과 요청이 평안함으로 지체들 안에 자리잡게 된다. 이로 인해 통합이 시도된 지식은 지체들과 나누고 비평과 조언을 받는데 어색하지 않게 된다. 또한 다른 교과내용과의 연결이 긴밀히 일어난다. 이 정신은 글로벌의 건축설계에도 반영되어, 교실의 복도 창이 낮아 수업이 다른 동료교사들에게 개방되게 된다. 즉 교수와 학습의 과정이 모든 이들에게 열려짐으로 공동체적 노력을 지향하는 것이다.

4) 통합의 훈련

필자는 통합이 자연스런 것이기보다는 의도적인 훈련의 산물이라고 본다. 기독교사로의 거듭남은 통합의 책임감과 통합의 시각을 불러 넣어 준다. 이런 능력이 지식을 향해 다가가는 것은 기독교사의 의도적인 적용에 의해 일어난다²¹⁾. 왜냐하면 통합이 기독교사 안에 체질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이웃사랑이 의도적인 훈련에 의해 우리 안에 체질화되는 것과 같다. 체질화되어 가면서 통합은 자연스럽게 작동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계속적인 훈련이 요청된다. 이 훈련의 기초 부분은 교사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다. 통합의 능력은 창조주의 진리를 닮아 가는데서 얻어지기 때문이다. 교사 안에 진리가 인격화되면서, 피조 세계의 본질적 의미와 목적을 알아가게 되며, 이를 통해 실재의 원리에 대한 바른 시각을 발전시킬 수 있다. 창조주의 성품은 그의 말씀 안에 들어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안에 담긴 그의 성품을 교사들은 닮아가게 된다. 따라서 순종의 훈련은 영적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 이와 함께 자신의 전공학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주어진 교제가 제공하는 지식이 그 학문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자리잡은 그리스도의 인격 위에 발전되는 시각을 갖고 그 주어진 지식의 가정과 주어진 교수 목표를 점검하게 된다.

21) 이 견해는 Harvest의 대표인 Bob Moffitt이 개발한 이웃사랑의 훈련과정을 통해 시작되어, Christian School International의 학교개발 책임자인 John De Jager와의 개인적 교제를 통해서 명확히 되었고, 달라스 윌라드의 말, “마음에 품고 있는 좋은 일들도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만 비로소 현실이 된다([하나님의 음성], 7쪽, IVP)를 통해 확증되었다.

글로벌 교사훈련과정은 KEY학습캠프에서 가르칠 1차시 수업지도안을 개발하는데 그 초점을 둔다. 이를 통해 교사는 통합이 무엇인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감각을 개발하게 되고 결국은 기초적인 능력을 구비하게 된다. 이런 작업이 계속되면서 통합하는 능력은 더욱 배양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목상한 말씀을 ‘순종한 이후의 삶’을 나누도록 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일지를 적어 제출하도록 한다. 이 훈련은 이웃의 네 가지 필요(영적, 육체적, 사회적, 지혜)와 이웃의 네 가지 위치(가족, 교회, 지역공동체, 광역공동체)의 조합으로 16회 실천이 한 사이클로 구성되고, 이것을 두 번 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기독교교육과 연관되어 요약된 기독교 세계관²²⁾, 지식관, 글로벌의 비전과 교육철학, 교육목표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각 교사로 하여금 전공교과의 기독교적 목표를 세우게 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선 국정교과서가 제공하는 과목 목표와 서구 기독교학교연맹에서 정리한 과목 목표를 대조하게 한다²³⁾. 대조과정을 거쳐 마련된 (기독교적)과목 목표를 동일 또는 유사 교과의 교사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목표를 조별로 세우게 한다. 이후 KEY학습캠프의 요일별 주제와 주제진술을 알려주고 각자 한 주제를 선택하게 하고, 그 주제에 적합한 한 단원을 교과서에서 선택하여, 그 단원의 목표를 설정하게 한다. 그리고는 학습목표를 세우고, 학습활동을 조직화하여 1차시 학습지도안의 초안을 만들게 한다. 초안은 공동체 안에서 발표되고 지체들의 조언을 통해 다듬어지고, 최종안이 학습캠프에서 사용된다.

5) 통합 훈련의 구체적인 과정²⁴⁾

(1) 교과 목표 설정: 글로벌의 비전, 교육철학 그리고 교육목표 등을 소개한 뒤, 과목 목표를 세우게 한다. 그 목표의 진술을 위해서, 우선 국정교과서의 머리말에서 진술된 과목 목표가 그 학문의 정체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기독교적 시각에 준하여 이 가운데 첨가되거나, 바르게 되어야 할 부분을 찾아보고, 기독교적 교수/학습의 네 가지 목표가 반영되도록 한다²⁵⁾. 또한 글로벌의 사명을 구현시키기 위해 들어가야 할 내용과 글로벌에서 가르쳐지는 이 교과목이 우리 학생들로 어떤 사람이 되길 기대하는지를 생각하고, 몇 가지 핵심 목표들을 세운다.

(2) 한 단원의 주제진술과 목표 설정: 주제 진술은 이 단원이 학습에 선택된 배경(왜 이 단원을 배워야 하나?)을 기술하고, 교과목의 목표 그리고/또는 특정기간의 주제(캠프)와 관련되게 한다. 그 단원의 주요 주제들과 각 주제에 대한 학습내용을 학습의 세 가지 영역들(개념적 지식, 방법적 지식, 문제해결과 창의적 경험)을 유념하여 정리한다(이 단원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학습내용(특히 개념적 지식)이 전제하고 있는 이전 학년의 기초적인 학습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파악하여(학생들의 수준은 어디에 있나?) 특정 주제와 그에 대한 학습내용을 판단해야 한다.

단원 목표 설정은 과목 목표 그리고/또는 특정기간의 주제를 잘 반영하며(외적 일관성), 단원의 주제와

22) Jack Fennema(신기영 옮김)의 “Education within the Reformed Tradition: what are we really talking about?” (개혁전통 안에서의 교육) Christian Educators Journal. Vol 38 No. 2(Dec. 1998) 10-13쪽.

23) 체육교과와 국사교과에서 시도된 대조자료를 (부록 1)에 첨부한다.

24) 이 과정은 주로 헤로 반 브루멜른의 「교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IVP)와, 부분적으로 John Van Dyk의 「The Craft of Christian Teaching: A Classroom Journey」의 안내, 그리고 경북대 박봉배 교수가 글로벌 공동체에게 나누는 조언 등을 통해 만들어 졌다.

25) 헤로 반 브루멜른의 「교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IVP) 23-29쪽 참조하였다. 첫째는 삶에 대한 기독교적 안목의 기초, 틀, 의미를 밝히 드러내는 것, 둘째는 개념, 능력, 창의성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 셋째는 학생들로 하여금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삶의 의미를 경험하게 하는 것, 넷째는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다운 생활 양식에 헌신하고, 기꺼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격려하는 것 등이다.

개념을 잘 드러내주는(내적 통일성) 목표를 세운다. 학습내용을 학습활동의 영역에 따라 균형 있게 목표로 진술한다. 핵심 주제와 관련되는 타 교과목의 내용을 포함시킨다. 단원학습을 통해 교사가 기대하는 학생의 태도/성향, 헌신에 대한 목표도 설정한다.

(3) 글로벌 KEY학습캠프를 위한 학습지도안 작성: 교과목표, 캠프의 당일 주제와 주제진술, 선택된 단원의 목표를 고려하여 학습활동을 고안한다²⁶⁾. 학습내용을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조명하고, 학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과 연관시키고, 관련되는 타과목의 내용과 연결한다. 다양한 학습활동을 그 적합성에 따라 고르게 사용한다. 학습활동의 다양한 단위(개인, 모둠, 전체)를 생각한다. 수업지도안은 교과 목표, 캠프 주제진술, 단원 목표, 학습 목표를 상위에 놓고, 진행순서는 배경 설정, 전개, 재구성, 초월로 두고, 평가에 대한 생각을 포함시킨다²⁷⁾.

6) 통합의 결실

이 준비과정을 거치는 기간동안에 참석한 교사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더욱 요청됨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이것은 교사들이 갖게 되는 부담감과 이로 인한 중보 기도의 간절한 요청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런 분위기는 수업지도안의 초안이 발표될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심화된다. 교사들은 우선 자신의 몸에 배인 시각의 틀과 지식과의 영적 전쟁을 시작으로 그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초대하게 된다. 이 통치의 초대는 교수방법으로까지 확대된다. 학생들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관적 성찰을 통과한 지식을 준비하고, 배운 지식을 한번 실행해 보게 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창의적으로 적용해보게 하여 지식을 확장시키는 것,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갖게 하여 신앙적 결단으로 유도하는 것은 교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다. 교사의 삶에서 중심된 부분인 '지식의 가르침'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초대되면서, 교사 자신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된다.

이렇게 준비된 수업지도안을 갖고 교사들은 일주일의 학습캠프를 통해 선교사자녀를 가르치게 된다. 매일 교수하시는 교사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하루 종일 진행되고 대부분의 동료교사들은 수업에 참관한다. 매일 밤 학생들로부터 받아보는 평가서를 통해, 더 극명하게는 마지막 날 가족을 초청하여 캠프 동안 했던 활동들을 학생들이 발표하는 것을 통해, 교사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한다. 그것은 학생들이 가장 좋았던 것이 수업이었다고 하는 것과, 이들의 성과 몸을 만지신 하나님의 손길이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수업을 통해 일어났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준비된 수업지도안과 교수/학습의 활동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인 교사공동체와 교사와 학생간의 인격적인 사귀를 통해 하나님으로 친히 학생들 안에 행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글로벌 교사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 하나님으로 친히 교사되게 하라!

5. 통합의 기대

기독교적 가르침은 교사와 학생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을 둔다. 기존 지식의 기독교 신앙적 통합은 기독교사의 준비된 수업내용이 준비된 방법으로 학생들과 나누어질 때 비로소 일어난다. 이는 삶의 과정이 인식적 차원과 함께 인격적 차원으로 나아갈 때 완성되기 때문이다. 기독교사는 자신이 통합적으로 준비한 지식을 동료교사들 또는 학생들과 나눌 때, 온전한 통합으로 나

26) 글로벌KEY학습캠프의 일정표를 (부록 2)에 첨부한다.

27) 이렇게 작성된 국어교과 수업지도안의 사례 두 편을 (부록 3)에 첨부하였다.

아감을 깨닫게 된다. 동료교사들의 조언과 학생들의 창의적 반응을 통해 자신이 소개한 지식이 더욱 온전한 통합으로 세우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을 나누어 가진 자들 속에 일어나는 인격적 변화, 즉 지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통합의 과정이 어디까지 포함하고 있는지 깨닫게 된다. 이 인격적 변화는 그 나눔 가운데 역사 하신 분이 만들어내신 것이다. 이는 기독교사로 하여금 ‘기독교신앙과 지식의 통합’의 기대를 인식적 차원에 가두어 두지 않고 인격적 차원으로 확대시키게 한다. 기독교사의 사역의 장은 삶 그 자체이다. 통합된 지식의 나눔은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것이 글로벌 공동체가 통합에 거는 기대이다.

(부록 1) 체육교과와 국사교과에서 국정교과의 목표와 기독교적 목표간의 대조

국사과목에 있어서의 학습목표 대조: 기독교적 목표와 일반교과서와의 비교

교사연수 1기 : 임 운 경

	국사교육의 일반적 목표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목표
<p>기본 방향</p>	<p>역사학의 한 분야로서 국사학은 한반도와 만주를 무대로 수천 년에 걸친 기간동안 문화를 일으켜온 우리 조상들의 삶을 연구과제로 삼는 학문</p> <p>국사학의 연구 성과를 내용으로 하여 바람직한 역사관식을 지닌 한국인을 기르는 교육활동</p> <p>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새로운 민족주의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주체적이면서 동시에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한국인의 형성</p> <p>확고한 민족적 자각을 통한 민족적 정체성의 확립과 민족의 전통에 대한 긍지</p>	<p>대전제</p>	<p>하나님은 세상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다른 것과 구별되어 창조되어졌다. 인간의 역사는 창조이후, 죄에 의해 타락되어 심판의 대상이나 구속의 약속을 의지한다.</p> <p>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며, 인간의 역사 속에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며,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인식한다.</p> <p>인간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창조하신 것들이 형식과 목적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청지기로서의 직분이 있음을 안다.</p>
	<p>1. 시민적 자질의 육성 2.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인식 3. 민주 시민으로서의 건전한 판단력</p> <p>인류생활의 발달과정과 각 시대의 문화적 특색을 파악한다. 각 시대의 특색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적 특수성을 파악하게 하여 우리 문화와 민족사의 발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우리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문화민족 및 국가발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려는 태도와 실천의지를 가지게 한다. 종래의 국사교육에 비해 좀 더 균형 잡힌 역사관식을 지닌 민주시민의 육성 역사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길러진 역사적 사고력을 토대로 오늘의 한국사회와 한국인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인식한다는 목표</p>	<p>구체적 학습 활동시 목표</p>	<p>성경에 기초를 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역사를 보도록 도와준다. 성경역사와 세속역사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어떠한 수업도 가치 중립적일 수 없다. 반드시 인간성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필요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반영한다. 인간과 그 행동을 배울 때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가치와 신념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분석한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가치관과 행동,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해 성경의 가르침을 토대로 정밀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배운다. 자신의 문화와 유산을 귀하게 여기도록 하되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관점을 가지고 지나간 과거를 돌아본다.</p>
<p>도달해야될 목표</p>	<p>1.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2. 역사 발전의 계열을 이해한다. 3. 증거의 중요성과 한계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기른다. 4. 인간의 문제해결에 대한 전망과 통찰을 기른다. 5.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능력을 기른다.</p>	<p>도달해야될 목표</p>	<p>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도록 한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도구로서 쓰임 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된다.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데 과거의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역사인식을 갖는다.</p>

체육과목에 있어서의 학습목표 대조: 기독교적 목표와 일반교과서와의 비교

교사연수 1기 : 양 종 태

체육과 목표	기독교적 관점의 체육과 목표
<p>체육은 잠재된 신체적 능력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여, 운동욕구를 실현하고 건강을 추구하는 신체활동에 관한 교과이다. 따라서, 체육은 신체 활동을 통하여 운동능력을 계발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풍요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게 하며, 체육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교과이다.</p> <p>체육은 신체 활동을 통하여 신체의 생리적 효율성을 높이고, 심리적 안정성을 유지시키며, 공간 지각 및 조작 능력과 신체적인 상호작용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p> <p>가.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운동기능과 건강에 필요한 체력을 기르게 한다. 나. 신체적인 표현 능력을 기르게 한다. 다. 운동과 여가 활동 및 건강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여 실천하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라. 바람직한 운동 태도와 사회적 태도를 지니게 한다.</p> <p>위에서 제시한 체육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조화로운 신체의 성장 및 발달, 자연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과 경쟁, 그리고 협력을 통하여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생활능력을 기르게 하는데 있다.</p> <p>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육의 목표는 신체활동 능력, 체력과 건강, 운동기능, 운동에 관한 지식, 사회적인 발달과의 상호 작용으로 표현할 수 있다.</p> <p>이를 목표 영역별로 살펴보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력 및 운동기능의 발달을 추구한 심동적영역 - 운동 및 건강에 대한 지식의 습득과 다양한 운동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고등 정신 문제 해결력 등의 인지적 영역 - 희생 정신, 자신감, 책임감, 공정심, 협동심 등의 정의적 영역을 포함한다. 	<p>체육 교육과정의 출발점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믿음이다(고전 6:20). 인간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 상태에 있어 하나의 통합된 존재이다.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할 때 몸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 정, 의, 체가 전인적으로 활동한다. 체육활동은 인간의 전 인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활동의 장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을 증진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품과 자질을 연마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체육교육의 목적이다.</p> <p>체육은 다양한 신체적 활동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체육 교육의 주요 목표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하여 신체의 운동기능과 체력증진과 좋은 성품들을 개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p> <p>●건강한 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 있는 신체발달 - 신체의 모든 기능 향상 - 기초 운동능력향상 - 신체의 결함 교정과 바른 자세 유지 <p>●건전한 정서와 바른 지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에 대한 기능 이해 - 운동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 활용하는 습관 - 건강관리법(운동, 보건, 영양) 습득 - 감정 순화와 자기통제력 육성 - 분석, 판단, 결단, 문제해결 능력 향상 <p>●올바른 성격과 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선을 다하는 태도 - 정정당당한 태도와 결과에 승복하는 태도 - 존경심과 책임감 있는 태도 - 진취성과 희생정신 - 협동심과 관대함 <p>●안전에 대한 지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에 대한 규칙 습득 - 안전에 필요한 태도와 기능 습득 <p>●여가선용의 지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 활동의 가치와 방법 이해 - 여가 활동에 필요한 태도와 기능 습득 - 건전한 체육문화 창조 및 계승

(부록 2) 제 3회 글로벌KEY학습캠프 일정표

글로벌 제 3회 KEY 학습캠프 계획안(7월 29일 - 8월 4일)

주제 : 한국 생활,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요일	7.29(일)	7.30(월)	7.31(화)	8.1(수)	8.2(목)	8.3(금)	8.4(토)	
요일별 주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	우리가 누려나갈 아름다운 세상	사랑하는 나의 조국	우리의 보급자리, 가정	소명, 그 책임의 자리	공동체	
이전시간		개인별 Q.T						
아침 활동	06:30-07:00 07:00-07:50	아침 운동 (양종태) 아침 식사						
오전 학과 시간	08:00-08:50	모둠별Q.T	모둠별Q.T	전체경건회 (정관석)	모둠별Q.T	모둠별Q.T	성경 (이상재)	
	09:00-09:50	한문 I (김숙현)	세계사* (정세영)	과학* (최은미)	생물* (최은미)	국어* (정혜덕)	가족 초청의 날 (신효경)	
	10:00-10:50	국어* (박혜은)	지리* (신효경)	한문II (김숙현)	체육* (양종태)	중국어 (주아금)		
	11:00-11:50	수학* (황유연)	국어* (김선경)	국사* (김이준)	가사	국사* (임윤경)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점심 식사	12:00-14:00	점심 식사 및 휴식			요리실습 및 식사	점심 식사		
오후 활동 시간	14:00-17:30	체육 (양종태)	나를 알아가기 II NCD 2장	부산 시내 탐방 (허정백)	미술 (서예)	나를 알아가기 III (NCD 3장) 및 대학진로지도 (이지수,전경아)		
		미니 올림픽	저녁활동 준비시간					
저녁 식사	17:30-18:30	저녁 식사 및 휴식						
저녁 활동 시간	18:30-20:30	환영과 친교의 시간 (이지수)	영어 찬양	영어 찬양	우리 소리 감상하기 (박성태)	찬양 및 주제강의 (정관석)	결단의 밤- 세족식,애찬식 (선주광) 편지 쓰기	
간식	20:30-21:00		휴식 시간					
정리	21:00-22:00	모듬별 시간	글쓰기(일기, 하루 소감), 묵상하기, 개인 경건의 시간 훈련 등- 개인별, 모듬별 다양한 활동				침묵의 시간	
취침	22:00-	더 나은 내일을 기원하며						

(부록 3) 국어교과의 학습지도안 사례들

제 3회 글로벌 학습캠프 국어과 학습지도안(고등부)

교사연수 3기 김 선 경

교과목표:

하나님께서 한민족에게 선물로 주신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지식과 방법, 태도를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고 구비하여 하나님과 이웃간에 아름다운 교제관계를 맺도록 한다.

캠프해당요일 주제진술요약: ‘우리가 누려 나갈 아름다운 세상’

‘성북동 비둘기’를 감상함으로써 글로벌 학생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음을 알게 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을 소망하도록 한다. 또한 각자가 자연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에 대해 발견, 헌신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단원목표:

이 시는 삭막한 현대 물질 문명 속에서 인간성 회복뿐만 아니라, 처음 하나님이 지으신 화목하고 조화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

1. 한국어로 된 시를 낭독하고,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2. 각 나라의 자연(환경) 파괴 상태를 나누고,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히 회복될 세상을 소망하게 한다.
3. 아름다운 세상의 청지기로서 각자의 삶 속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다.

학습목표:

1. ‘시’의 운율을 살려 낭독하기.
2. 시의 형성 배경과 그 내용을 알기.
3. 자연(환경) 파괴 상태를 각 나라별로 발표하기.
4. ‘회복’에 대한 시의 마지막 부분을 모둠별로 완성하기(시 창작).
5. 아름다운 세상의 회복을 위해 청지기적 삶을 살도록 결단하고 나누기.

교수진행(소요시간 등의 특기사항):

(1) 배경설정: (10분)

- 시대적으로 ‘성북동’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의 필름을 본다.
이 때, 어두운 배경 음악을 함께 들려 준다.
- 필름 상영이 끝나면 ‘성북동 비둘기’ 시를 함께 낭독한다.

(2) 전개: (15분)

- ‘성북동 비둘기’ 낭독 후 자연파괴가 왜 일어나게 되었는 지를 질문한다.
(이 때 교사는 학생들에게 인간의 타락이 그 궁극적인 원인임을 알도록 안내한다.)
- 그 내용과 함께 시에 대한 느낌을 발표한다.(학생)
- 시가 쓰여진 배경 및 시의 이해를 돕는 내용을 설명한다.

(3) 재구성: (10분)

- 학생들이 살다 온 각 나라의 자연 파괴 상태를 발표한다.(모둠별)
자연 파괴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함께 발표하도록 돕는다.

(4) 초월: (15분)

- 자연의 '회복'을 소망하는 내용을 담은 창작시를 짓도록 한다.
시 창작은 모둠별로 진행되고, 참조물로 <찬송가 40장 가사>를 제공한다.
- 창작시를 함께 감상한다.(OHP)
- 끝으로, 세상의 청지기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나누고 이에 헌신한다.

평가:

1. '성북동 비둘기' 시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가?
2.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파괴되었음을 인정하고 회복을 소망하는가?
3.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청지기로서 살기로 결단하는가?

한자

- 세상(世上)
- 자연(自然)
- 평화(平和)

제 3회 글로벌 학습캠프 국어과 학습지도안(고등부)

교사연수 3기 정혜덕

1. 교과목표

-하나님께서 한민족에게 선물로 주신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지시과 방법, 태도를 공동체안에서 경험하고 구비하여 하나님과 이웃간에 아름다운 교제관계를 맺도록 한다.

2. “소명”, 그 책임의 자리“ 주제진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그분의 자녀로 부르시되 특별한 일을 맡기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책임있게 응답하는 삶을 살도록 한다.

3. 단원목표

-기독교적 소명의 핵심개념 및 이를 개인의 차원에서 발견, 발전시키는 방법을 이해하여 내면화하고 이에 관련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능력을 신장시킨다.

4. 학습목표

-그룹토론과 본문독해를 통해 소명의 개념 및 소명의 발견, 발견과정 이해하기
-나의 소명 점검하기

5. 교수/학습 진행

* 환경구성

-자리배치: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고려하여 자리를 배치한다. 4인 1조 그룹활동을 할 수 있도록 책상 4개를 붙여서 모둠을 구성한다. 모둠은 학습자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상1, 중2, 하1로 사전에 교사가 조직해준다. 책상에는 학습자들의 이름표를 붙여 놓아서 바로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한다. 이름표는 두 가지 종류의 색깔로 나누어서 짝을 구분한다.

-본 수업은 캠프 4일째에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따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은 갖지 않는다.

1) 배경설정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 교사는 OHP 필름을 활용하여 진술들을 하나씩 보여준다. 진술들은 4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룹에서는 각 진술들을 한 단계씩 보여 줄 때마다 의논을 해서 답을 정하고 준비된 답지에 기록한다. 답지에는 개인의 의견과 조의 의견을 적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조원들은 각각 한번씩 답을 발표하게 한다. 필름에서 설명하는 인물들은 히틀러, 간디, 바울이다.

-준비자료 : <도표 1(OHP)>, <답지 1>, 히틀러와 간디의 사진(사진 1)

-소요시간 : 5분

2) 전개

(1) 개념 정리하기

-앞에서 논의한 히틀러, 간디, 바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소명의 개념을 정리한다. 강의와 질

문을 적절히 활용한다.

-준비자료 : <도표 2>, 칠판, 백묵, 이성애님 사진 (사진 2)

-소요시간 : 5분

(2) 개념 확대하기

- 학생들에게 이러한 개념에 따라 자신의 소명을 발견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일을 10개 모으고 이를 모둠에서 나누게 한다. 먼저, 답지에 자신이 생각하는 이름을 적어서 옆사람에게 돌린다. 옆사람의 종이를 받으면 이름과 일을 읽어보고 모르는 이름에 V표시를 한다. 종이를 다 돌린 뒤에는 V표시기가 많이 나온 이름부터 시작해서 모둠원들에게 그 사람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준다. 설명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준비자료 : <도표 3>, <답지 3>

-소요시간 : 10분

3) 재구성

-주어진 읽기자료(강아지똥)을 읽는다. 특히 강아지똥이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게 된 과정을 염두에 두고 독해하도록 한다. 읽기자료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질문한다. 질문들은 글의 내용에 관한 것, 생각과 느낌, 주제에 대한 것들로 구성한다. 강아지똥이 자신의 소명을 발견한 과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탐구한다. 먼저 개인별로 질문을 주고 생각할 시간을 준 다음 모둠에서 질문을 나누게 한다. 이후 모둠을 전체로 묶어서 일대일로 질문을 나눈다.

- 준비자료 : 읽기자료(copy), <질문지 1>

- 소요시간 : 20분

- 주의사항 : 말하기/듣기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쓰고 읽지 안도록 지도)

4) 초 월

- 학습자 자신의 소명에 관한 내용을 글로 표현해 본다. 소명이란 무엇인지, 자신의 소명은 무엇인지, 소명을 발전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직 소명을 찾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 예시 질문들을 활용하여 한 두단락 정도의 글을 쓴다.

- 앞으로 소명에 대해서 더 탐구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지를 물어서 학습이 심화되는 통로를 남겨둔다.

- 준비자료 : <글쓰기 1>

- 소요시간 : 10분

* 정리 : 인사와 다음 과목 안내(주제 연계)

6. 평가

-학생들의 글을 통해서 전체 수업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얼마나 내면화되었는지 살펴본다.

- 1) 정유성과 이종태의 “대안학교(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사양성 방안(1999)” 연구보고서 참조함.
- 2) 정유성과 이종태의 연구에 따르면, 대안학교는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고유이념추구형, 자유학교형, 제적응 학교형, 생태학교형.
- 3) 현대성에 대한 설명은 주로 Millard J. Erickson, 「Postmodernizing the Faith」(1998, Baker) 제 1장을 참조하였다.
- 4) Theology and Sociology: A Reader (Robin Gill, 1996, Cassell)에 게재된 "Theology and Symbolic Realism"에서 저자 Robert Bellah는 종교적 상징의 사회학적 이해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초기 자연과학의 기계론적 모델이 실재가 객체 안에 존재하고 주체는 단지 그 객체의 행위를 관찰하여 원리와 규칙을 찾아내어야 한다는 객체-중심의 실재관을 파급시켰다고 정리한다.
- 5) 그린은 앞의 저서에서 George Knight가 「Philosophy and Education」에서 지식의 근원들로 감각, 계시, 권위, 이성, 직관 등을 지적하면서, 현대인은 감각과 이성을 통해 지식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음을 소개한다 (159쪽).
- 6) Millard J. Erickson, 「Postmodernizing the Faith」(1998, Baker) 제 1장, Walter Brueggemann, Texts Under Negotiation: The Bible and Postmodern Imagination (Fortress 1993) 제 1장, Lee Hollaar, "Leadership is Community Building: A Postmodern and Independent School Perspective" 등을 참조하였다.
- 7) 이 내용은 「기독교적 학문의 실재: 통합연구」(CUP) 안에 게재된 로날드 R. Nelson의 “신앙-학문 통합: 양립론자, 개조론자 및 변혁론자들의 전략” 47-48쪽을 참조했다. 흥미롭게도, 이 네 가지 앎의 과정은 Pamela Mackenzie가 편집한 「The Entry Points: for Christian Reflection within Education」(1997, Care for Education)에서 소개한 히브리어 ‘야다’의 네 가지 용례와 조화롭게 연관되는 것 같다. 그 첫째는 배워서 아는 것이고, 둘째는 인격적인 사귀를 통해 아는 것이고, 셋째는 선택의 기로에서 바른 것을 분별하는 것이고, 넷째는 책임을 수행하는 것 등이다. 필자의 생각에는, 배워서 아는 것은 경험적, 지성적 수준과, 분별하는 것은 합리적 수준과, 책임 수행은 책임과 결단의 수준과 연관되며, 인격적 앎은 인식적 과정에서 신앙적 과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앎으로 생각된다.
- 8) Lonergan은 사람의 앎의 욕구가 무한정 하다고 했는데(Nelson의 글 49-51쪽), 필자는 그 무한정성의 근거는 바로 사람이 실재의 본질과 의미를 알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무한정한 질문에 응답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가 결국 본질과 의미의 신적 기원으로 사람을 지향하게 하는 것이다.
- 9) 제임스 사이어의 「지성의 제자도」 106-107쪽을 참조했다.
- 10) 창조주와 피조물간의 구분은 성경이 강조하는 궁극적인 이원성이다 (리처드 마위, 「왜곡된 지식」, 113-114, CUP).
- 11) 팔머는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에서, “예수님 안에서 인격적 진리의 패러다임을 발견하기 위해 반드시 그분을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이 필요는 없다. 진리는 인격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각 개인의 심장부에 있는 진리의 형상을 긍정하는 것이다(84쪽).”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그의 ‘진리’는 모든 사람들 -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맺음의 여부를 떠나서 -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인식주체와 대상간의 관계를 통해 긍정될 때 발견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주장은 인식주체와 대상간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그의 논지에 근거를 둔다. 이 진리와 인격적 관계의 무리한 등식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중심 됨을 희석시킬 뿐만 아니라, 비인격적인 대상과의 관계까지 인격화시키는 무리를 범하게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 12) 필자는 창조주의 진리와 피조 세계의 본질적 의미를 창조주와 피조 세계의 원리와 서로 다른 것으로 구분지음으로 제임스 사이어의 부분적인 견해를 수용하지는 않는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지를 이해하는 것과 화학물 질로서의 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동일한 지성에 의해 알아진다고 주장한다(「지성의 제자도」, 112-113쪽). 필자의 생각에, 만약 사이어의 ‘이해한다’가 하나님과 물에 대한 지성적인 작용만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수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두 대상 모두에 대해 사람은 동일한 이성으로 이해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그 진술이 하나님을 아는 신앙적인 행위 수준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이 수준은 이성을 떠나 자기-초월적 과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 13) C. S. 루이스, 「내가 믿는 기독교」 22-27쪽(대한기독교서회)을 참조함.

- 14) 팔머의 객관주의적 교수방법에 대한 비평은 원리 지향적 삶의 현대적 습관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유익한 분석을 제공한다(「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제 3장 참조). 이 국한된 삶의 과정에서는 인식주체의 회심과 지식의 실천이 요구되지 않는다. Lonergan이 제시한 ‘책임과 결단의 수준’으로 나아가길 주저하는 현대지성인은 자신을 헌신으로 도전하지 않는 원리만을 지식의 대상으로 삼게 된 것이다.
- 15) 제임스 사이어의 「홍길동 대학에 가다」(IVP) 제 5장을 참조함.
- 16) 이 질문이 현대인에게 생소한 것은 현대의 객관성 강조가 진리관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지식의 객체성이 진리의 정체성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그 인격성을 앗아갔다.
- 17) 통합에 대한 다양한 이해들이 있다. 케네스 헤르만은 「기독교신앙과 전공과목」(IVP) 제 4장에서 기독교학자들이 시도하는 통합의 세 가지 일반적인 유형들(기독교적 연구주제 선정, 기독교신앙과 조화되는 지식의 수용, 신앙으로 선별된 지식으로 새로운 지식 창출)을 소개하고 각각에 대한 비평을 내리고 있다. 아더 홈즈는 「기독교대학의 이념」(CUP) 제 5장에서 통합의 네 가지 차원들, 태도적, 윤리적, 기초적, 세계관적 차원을 소개한다. 울프는 「기독교적 학문의 실제: 통합연구」(CUP)에 게재된 “통합과 의사통합 사이의 경계”에서 학문의 가정 점검, 학문의 가치 점검, 조직적 도식들 등을 소개한다. 앞에서 소개된 로날드 벨슨은 통합의 전략들, 양립론, 개조론과 변혁론을 소개한다.
- 18) 대략적인 관찰에 따른 필자의 초보적인 상상은 양립론자의 군에는 주로 자연과학자들(예, 두뇌생리학자 MacKay, 수학자 Heie 등)로 구성되고, 변혁론자의 군에는 신학자, 인문사회과학자들로 구성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실제에 대한 해석개방의 정도가 지식의 왜곡 의식을 그 학문공동체에 속한 기독교인들에게 다른 정도로 불러일으킬 것으로 추측하기 때문이다.
- 19) 필자는 지식을 문화의 한 부분으로 보고, 이 세상의 지식을 스티브 몬스마 편저, 「책임 있는 과학기술」(CUP), 120-121과 조종남 편저, 복음과 문화(IVP), 72-73쪽을 참조하여 아래의 범주들로 정리해본다. 통합의 대상이 되는 지식은 이들 가운데 일부분임을 강조한다. 첫째, 창조주께서 친히 세우신 지식의 내용이 있다. 둘째, 계시(일반계시 또는 특별계시)에 순종함으로 얻어진 것으로 생각되는 지식의 내용이 있다. 셋째, 계시에 불순종함으로 얻어진 것으로 생각되는 지식의 내용이 있다. 이들 중에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변혁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넷째, 계시에 대한 신학적 해석들에 있어서 위의 범주 중 하나로 일관된 판단을 내리기 힘든 내용들이 있다. 다섯째, 계시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도 있다. 또한 지식은 다양한 문화적 차원들(세계관, 가치기준, 관습, 제도, 의사소통양식 등)에서 형성된다. 세계관은 가치기준에 스며있고, 세계관과 가치기준은 관습의 근간이 되고, 제도는 이 관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들의 모임을 통한 한 사회는 통합된 체계로 세워진다. 의사소통양식은 이런 차원들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담화를 가능하게 함으로, 제도화와 변화를 일으키는 매체가 된다.
- 20) 벨슨의 책, 55-59쪽 참조함.
- 21) 이 견해는 Harvest의 대표인 Bob Moffitt이 개발한 이웃사랑의 훈련과정을 통해 시작되어, Christian School International의 학교개발 책임자인 John De Jager와의 개인적 교제를 통해서 명확히 되었고, 달라스 윌라드의 말, “마음에 품고 있는 좋은 일들도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만 비로소 현실이 된다(「하나님의 음성」, 7쪽, IVP)를 통해 확증되었다.
- 22) Jack Fennema(신기영 옮김)의 “Education within the Reformed Tradition: what are we really talking about?”(개혁전통 안에서의 교육) Christian Educators Journal. Vol 38 No. 2(Dec. 1998) 10-13쪽.
- 23) 체육교과와 국사교과에서 시도된 대조자료를 (부록 1)에 첨부한다.
- 24) 이 과정은 주로 헤로 반 브루멜른의 「교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IVP)와, 부분적으로 John Van Dyk의 「The Craft of Christian Teaching: A Classroom Journey」의 안내, 그리고 경북대 박봉배 교수가 글로벌 공동체에게 나눈 조언 등을 통해 만들어 졌다.
- 25) 헤로 반 브루멜른의 「교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IVP) 23-29쪽 참조하였다. 첫째는 삶에 대한 기독교적 안목의 기초, 틀, 의미를 밝히 드러내는 것, 둘째는 개념, 능력, 창의성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 셋째는 학생들로 하여금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삶의 의미를 경험하게 하는 것, 넷째는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다운 생활 양식에 헌신하고, 기꺼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격려하는 것 등이다.
- 26) 글로벌KEY학습캠프의 일정표를 (부록 2)에 첨부한다.
- 27) 이렇게 작성된 국어교과 수업지도안의 사례 두 편을 (부록 3)에 첨부하였다.